

Discipleship Essentials

영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 I

영적 훈련을 시작하는 첫걸음

*Discipleship Essentials*

# 영적 훈련을 시작하는 첫걸음



영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에 당신이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 훈련은 당신의 영혼을 더 빨리 성장시킬 것이다. 친밀하면서도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이 훈련에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 그것은 바로 취약성 **vulnerability**, 진리 **truth** 그리고 책임성 **accountability**이다.

**취약성**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다른 성도들에게 내보이고 자신의 모든 면모를 드러내보이면서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할 때 나타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더 내어맡기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전위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차례를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훈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당신은 진리가 구체적인 형상을 갖춰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의 헌신을 독려할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틀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이 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신다.

1과의 주제는 **제자 삼기**다. 이 과를 통해 당신의 삶에 견고한 기초

가 놓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견고한 신앙을 전해주고픈 욕구는 성숙한 영혼이 나타내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부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 생명을 건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2과 제자 되기는 진지한 과업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3과부터 6과까지는 신앙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다.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훈련의 개념은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가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에서 말하는 훈련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포스터는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를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이라고 말한다.

3과의 주제인 경건의 시간(Q.T.)이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벗이자 당신을 지켜주시는 요새요 보호자로 체험하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4과에서 다루는 성경 공부는 경건의 시간의 핵심 요소이다. 이 교재는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 방법은 일련의 관찰 질문을 통하여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탐구 작업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납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는 작업을 이끌어준다.

5과에서 다루는 기도는 경건의 시간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다. 기도에 관해 간단한 길잡이를 제공하는 5과는 ‘기도는 곧 대화’라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과에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공예배이든,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성격을 보여주는 행위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천상의 예배에서 느낄 경외감과 경이감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

*Growing Up in Christ*

# 1 제자 삼기

심비에 새기는 말씀 마태복음 28:18~20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누가복음 6:12~16; 9:1~6, 10

어깨를 딛고서는 독서 성경은 제자를 삼으라고 요구한다



## 핵심 진리

제자를 길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훈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의도적인 관계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차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도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고자 다른 제자들과 동행한다. 이런 훈련에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위에서 제시한 질문과 대답의 핵심 문구를 확인해보라. 그리고 그 의미를 당신 자신의 말로 이야기해보라.





## 심비에 새기는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마태복음 28:18~20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른다.

1.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시기 전에 일어난 중요 사건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



---



---



---



---

2. 오늘 우리가 심비에 새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이다. 이 구절들을 소리 내어 암송해보라.

---



---



---



---



---

3.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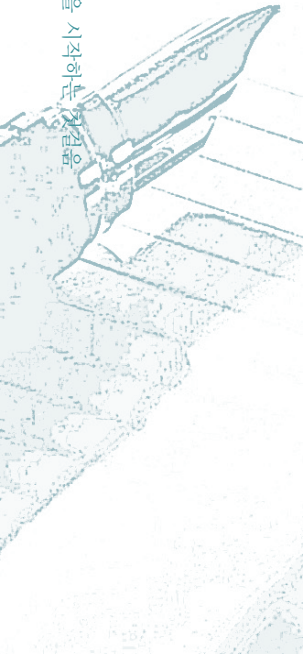
---



---



---





4. 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전제로 당신의 권세(18절)를 강조하시는가?

---

---

---

---

---

5. 제자를 삼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

---

---

---

---

---

6. 제자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

---

---

---

---

7. 이번 주에 이 구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었는가?

---

---

---

---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늘 자신의 지상 사역이 끝날 때를 염두에 두고 사셨다. 예수님 앞에는 아버지께 올라간 뒤에 그 사역을 이어받을 몇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 항상 놓여 있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훈련시켜 이들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누가복음 6장 12~16절과 9장 1~6, 10절을 읽어보라. 당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밤새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이어지는 “어깨를 딛고서는 독서”를 읽어보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2. 누가복음 9장 1~6절로 보아 당신은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열두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

---

---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가(눅 9:1)?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능력과 권세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

---

---

---

---

---

---

---

4. 제자들이 돌아온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눅 9:10)?

---

---

---

---

---

---

5. 당신에게 특히 영향을 준 구절이 있다면 무엇인가?

---

---

---

---

---

---



## 성경은 제자를 삼으라고 요구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sup>마 28:19</sup>고 명령하셨다. 이는 곧 교회의 사명을 일러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몇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제자로 만드셨다.

###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방법

“자기와 함께 있게”<sup>마 3:14</sup> 될 열두 사람을 택하신 것은 어떤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는가? 이 열두 사람을 택하신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내면화** 예수님은 몇 사람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역의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무릅쓰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열두 명을 공개리에 택하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sup>눅 6:13</sup> 왜 예수님은 측근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대중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않으셨을까?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어 떠들어댈 때 예수님이 조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놓았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sup>요 2:24~25</sup>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동시에 군중들이

변덕쟁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닷새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다.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의 변덕을 잘 알고 계셨기에, 당신이 택하신 몇 사람을 토대로 삼아 사역을 일구셨다. 이 몇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상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제자들은 대량생산이 되지 않는다. 제자들은 친밀한 사귄과 인격적 헌신의 산물이다. A. B. 브루스는 이 점을 이렇게 요약한다.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제자훈련 덕분에 세상에 미치는 스승 예수님의 영향력이 영원할 수 있었고, 그분의 나라가 다수의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피상적 인상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고 견고한 확신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sup>1)</sup>

배가 예수님이 몇몇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해서 이것이 곧 그분이 다수에게 다가갈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유진 피터슨은 이 진리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놓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10분의 9를 열두 유대인에게 집중 하셨다. 이것이 모든 미국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sup>2)</sup>

예수님은 소수를 생각하실 만큼 넉넉한 비전을 갖고 계셨다. 소수에 초점을 맞췄다 하여 그분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도리어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적어도 열한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지닌 권세를 힘입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열한 배로 늘어난 것이다. 로버트 콜먼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론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다수가 따르게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다.”<sup>3)</sup>

### 바울이 제자를 삼은 방법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과 똑같은 목표와 방

법을 채택한 것을 본다. 바울의 대위임령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천명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8~29** 바울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아 부은 나머지, 자신이 돌보는 이들을 성숙한 성도로 만들고자 노심초사하는 자신의 처지를, 아기를 낳느라 진통하는 여인의 수고에 비유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 4:19**

바울은 예수님의 방법을 좇아 각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울 역시 다수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신앙을 견고히 물려주는 일은 많은 청중에게 설교하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물려주는 방식을 사용하라고 권면하였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강조는 저자의 것 바울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헌신이 있으면 제자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리라고 보았다. 이 구절 속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제자훈련 네트워크가 들어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바울 → 디모데 → 충성된 사람들 →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이라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안다. 바울이 쓴 서신들에는 바울이 자신을 바쳐 양육한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몸소 군사로 싸웠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디모데, 디도, 실라<sup>실루아노</sup>, 유오디아, 순두계, 에바브로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군사들에게 물려주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은 사역자로서 책임을 맡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력자가 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뀐 것은 자

신이 삶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성육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삶으로 삶과 부대끼는 것이다. 우리가 후대에 그리스도와 닮은 형상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친밀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4:16**고 권하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살전 1:6**라고 말한다.

### 오늘날의 제자 삼기

제자 삼기는 세대를 이어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삶에 복음을 깊이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제자훈련은 하나의 관계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교정하며 도전을 던짐으로써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걸어간다.

이 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약성을 드러내는 관계**는 감추어진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새 모습으로 다시 빚어낼 수 있다. 둘째, **진리를 중심에 두기**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서로 열어보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그 내면부터 다시금 지어가실 때 강조되는 요소다. 셋째, **상호 책임**은 모든 사람이 함께 동의한 기준을 책임 있게 준수하도록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우리는 대량생산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단기간에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콜먼은 그 점을 이렇게 천명한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



역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잠깐 갈채를 받을지라도 대중에게 인정 받는 사역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몇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해냄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사역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sup>4)</sup> 역설적이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몇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자의 수를 배가하고 교회 지도자가 될 재목들을 확충할 수 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들과 소그룹 사역 역시 성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소규모 제자훈련 그룹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견고한 기초를 다지기 힘들다. 키스 필립스가 제시한 다음 표는 복음 전도자가 하루 한 사람씩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경우와 제자훈련 인도자가 1년에 한 사람을 제자로 훈련하여 성도로 길러내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다.<sup>5)</sup>

연수	복음 전도자	제자훈련 인도자	연수	복음 전도자	제자훈련 인도자
1	365	2	9	3,285	512
2	730	4	10	3,650	1,024
3	1,095	8	11	4,015	2,048
4	1,460	16	12	4,380	4,096
5	1,825	32	13	4,745	8,192
6	2,190	64	14	5,110	16,384
7	2,555	128	15	5,475	32,768
8	2,920	256	16	5,840	65,536

어느 쪽을 당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에 헌신할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 생각해볼 문제들

1. 예수님이 열둘을 뽑아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

---

---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

---

---

---

2. 바울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방법론을 본받았는가?

---

---

---

---

3.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4:16)고 권한다. 당신도 바울처럼 말하거나 바울처럼 살 수 있는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

---

4. 효과적인 제자훈련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  
한가?

---

---

---

---

5. '어깨를 딛고서는 독서'가 당신에게 확신이나 도전이나 위로를  
주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

---

